

유도 金 뒤엔 목포 사나이 독심 양궁장 '바가지 머리'는 광주産

정훈 국가대표팀 감독

연일 감독드라마 연출

목포 출신의 정훈 유도 대표팀 감독이 연일 안방을 울리고 있다. 정훈 감독은 1일(현지시각)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유도 90kg 결승이 송대남의 승리로 끝나자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제자와 눈물의 맞절을 했다. 정 감독이 런던에서 흘린 세 번째 눈물이다. 전남체고 시절 전국체전 무제한급 우승을 차지했던 정 감독은 아시아권 2연패와 세계선수권 제패까지 이뤘지만 올림픽 정상에는 서지 못했다.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동메달로 아쉬움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정 감독은 런던에서

제자들이 안겨준 값진 메달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81kg급의 김재범이 그랜드 슬램을 완성하는 금메달을 수확했고, 사연 많고 인연 많은 송대남이 왕기춘 대신 '깜짝 금메달'을 안겨줬다. 비록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지는 못했지만 '관정 번복' 논란 속에 66kg급의 조준호도 값진 동메달을 더해줬다. 올림픽을 위해 혹독하게 제자들을 내몰았던 정 감독은 '진짜 무대'에서는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있다. 고독한 승부를 벌이는 제자들을 위해 퇴장까지 당할 정도로 큰 소리로 작전을 내리고 격려를 하고 있다. 목포에서 유도의 꿈을 키웠던 청년이 믿음직한 지도자로 런던의 감독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유도 대표팀 정훈 감독(오른쪽)이 81kg급에서 금메달을 딴 김재범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석호씨 가슴보호대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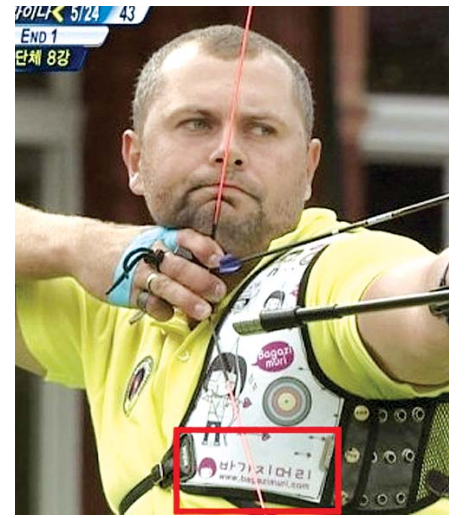
광주 출신으로 '바가지 머리'라는 여성의 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손석호(36·사진) 대표가 수년 전 양궁선수들에게 후원했던 제품이 런던올림픽에 등장해 화제다. 한국의 최현주와 우크라이나 마르키안 이바슈크, 인도네시아, 덴마크 선수가 잇따라 한글로 "바가지머리"라고 적힌 체스트 가드를 착용한 채 경기에 나선 것. 손 대표는 지난 2009년 후배인 강장원 전 호남대 양궁팀 코치(현 한체대 코치)로부터 "양궁은 효자 종목이지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바가지 머리' 티셔츠를 광주양궁팀에 선물했다. 또 그해 열린 울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맞춰 체스트 가드에 부착할 수 있는 '바가지 머리' 제품 500여개를 강 코



손석호 대표

무대에 등장하게 됐다.

손 대표는 "세계 유명 선수들의 가슴에 우리 캐릭터와 상호가 적혀 있는 걸 보고 놀랐다"며 "다른 비인기종목도 후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연매출 200억원대의 '바가지 머리' 쇼핑몰과 함께 광주 동구 불로동에 '카페 바리에'와 갤러리 '바리에 아트'를 운영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우크라이나 마르키안 이바슈코 선수가 착용한 가슴 보호대에 '바가지머리'라는 한글이 쓰여져 있다. <KBS 방송화면 캡처>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소피아 벨리카야를 물리치고 우승한 김지연이 감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도 송대남이 손위동서 정훈 감독과 맞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사격의 '신성' 김장미가 금메달을 확정된 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적의 칼춤' 펜싱 금 김지연

"대표 1년...로또 같아요"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다." 한국 여자 펜싱 첫 금메달의 주인공 김지연(24·익산시청)이 밝힌 우승 소감만큼 2012 런던 올림픽 여자 사브르 경기는 '로또'처럼 극적이었다. 김지연은 1일(현지시각) 펜싱 여자 사브르 결승전에서 소피아 벨리카야(러시아)를 15-9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국가대표로서의 경력이 겨우 1년이 넘는 김지연의 '깜짝 금메달'이었다. 또한 패배의 순간에서 구해낸 천금같은 금메달이었다. 준결승에서 김지연은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세계 랭킹 1위 마리엘 자구니스(미국)와 만났다. 세계 최강의 상대를 맞은 김지연은 1세트에서 2-8로 뒤지며 결승 진출권을 넘겨주는 것 같았다. 2세트에서 과감한 공격으로 자구니스를 압박하면서 승부를 13-13 원점으로 돌렸다. 당황한 자구니스를 상대로 김지연은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15-13의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김지연은 준결승의 기세를 몰아 난적 벨리카야까지 넘어서면서 한국 여자 펜싱 선수 중 처음으로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스승과 맞절 나눈 유도 금 송대남

"동서 형님 고맙습니다"

'눈물의 맞절'이 금메달만큼이나 진한 감동을 남겼다. 송대남(33·남양주시청)이 1일(현지시각)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유도 90kg 결승에서 쿠바의 아슬레이 곤살레스와를 안위축결기로 제압하고 극적인 승리를 장식했다. 송대남은 금메달이 확정되자마자 정훈 대표팀 감독부터 찾았다. 결승전 도중 소란을 피웠다며 퇴장을 당했던 정 감독은 두 손을 번쩍 든 채 제자를 향해 달려왔고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로 포옹을 했다. 송대남은 잇단 악재에 유도를 포기했던 자신을 불쌍아 준 스승에게 큰절까지 올렸다. 정 감독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이뤄낸 준 장한 제자를 향해 맞절을 하며 감동을 남겼다. 눈물 범벅이 된 금메달리스트와 감독의 맞절에는 사제지간 이상의 진한 정이 있다.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송대남이 정 감독의 막내 처제와 결혼을 하면서 '동서지간'이 됐다. 성실한 송대남에게 정 감독이 직접 중매를 했다. 81kg급 세계 최강자로 군림했지만 올림픽과는 인연이 없었던 송대남은 한때 유도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 감독의 독려 속에 다시 매트 위에 올랐고 90kg급으로 체급을 올리는 승부수를 던진 끝에 33살이라는 나이에 올림픽에 나섰다. 정 감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금메달이었다.

만점 명종 사격 금 김장미

"20살 장미 金으로 폼췌"

한국 여자 권총 사상 첫 올림픽 챔피언이 탄생했다. '새벽' 김장미(20·부산시청)가 1일(현지시각) 2012 런던올림픽 여자 25m 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본선에서 올림픽 신기록(591점)을 쓴 김장미는 결선에서 201.4점을 쏘아 합계 792.4점으로 우승했다. 2위에 5점차로 앞서 결선에 오른 김장미는 5발씩 1시리즈로 해서 총 20발로 승부를 가르는 결선 첫 발에서 10.7점을 쏘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하지만 김장미는 2시리즈에서 49.1점으로 주춤했다. 반면 본선 3위로 결선에 오른 '디펜딩 챔피언' 천잉(중국)이 1시리즈 52점에 이어 2시리즈에서도 51.6점을 쏘며 추격에 나섰다. 그리고 3시리즈에서 천잉이 52.8점을 기록하며 49.3점을 쓴 김장미를 따돌리고 선두로 나섰다. 0.8점이 뒤진 채 4시리즈에서 나온 김장미가 첫발을 10.1점으로 장식했다. 두 번째는 10.4점, 천잉도 10.1점, 10.3점을 쏘며 저력을 발휘했지만 세 번째 발에서 승부가 갈렸다. 김장미가 만점인 10.9점을 명종시했지만 천잉이 9.3점으로 흔들리며 1위 자리를 내줬다. 김장미는 남은 두 발을 10.3점, 10.1점에 쏘며 금메달을 지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빛의 만점

- 김종두



아이고...시원하다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 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국내 여행
목포-제주도 실속 ₩109,000~ 품격 ₩169,000~
장흥-제주도 실속 ₩149,000~ 품격 ₩18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 석식, 수송비 (광주-목포&장흥)

항공
광주-제주도 ₩31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 석식
>> 여름 성수기 별도문의바랍니다.

울릉도
2박 3일 ₩325,000~ 홍도, 흑산도
1박 2일 ₩294,000~ 1박 2일 ₩189,000~

중국
★ 무안-상해, 장가계 4일 ₩1,150,000 (출발일 8/13 화경)
★ 무안-상해, 장가계 4일 ₩999,000 (출발일 8/20 화경)
★ 무안-상해, 장가계, 주가각 5일 ₩1,500,000 (출발일 9/29 화경)
불포함: 개인적인 경비
★ 무안-북경 4일 ₩499,000~ ★ 무안-북경 5일 ₩59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90,000), 단체비(₩30,000), 기사&가이드팁

무안공항 전세기 방콕파타야

최고의 인기 방콕파타야!! 무안 전세기 가족과 함께 마지막 기회 한정특가

방콕 파타야 3박4일 ₩599,000~
출발일 (8/4,8/7)

3박4일	방콕 파타야	₩799,000~	출발일: 8/11
3박5일	방콕 파타야	₩799,000~	출발일: 8/7

불포함: 개인경비, 가이드및기사팁, 유류할증료

일본 여름철 전세기에 카멜레온 대박! 1,000 원의 대박!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름휴가!! 키타큐슈 4일 ₩549,000
출발일 8/15, 19, 22, 23
★ [품격] 일본 전통로칸 스지유 마을 온천 즐기 4일 ₩499,000
출발일 8/15, 19, 22, 23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20,000)
★ 가족과 함께 일본 고급펜션 4일 ₩379,000
출발일 8/15, 19, 22, 23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20,000)
★ 청단풍이 아름다운 유후단케 등반 4일 ₩379,000
출발일 8/15, 19, 22, 23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20,000)
★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텐보스 4일 ₩599,000
출발일 8/22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20,000), 광주-부산 수송

동남아
★ 베트남 북부/캄보디아 6일 ₩669,000~ 출발일: 10/8, 10, 14, 26, 28
불포함: 광주-인천 수송비, 텍스&유류할증료(₩183,000/8명기준), 기사&가이드팁(₩50), 김방머지(₩25), 공항택시(₩10), 칼라사(₩10)>8명 이상 출발가능

추석연휴에 떠나는~~
★ 보라카이 직항 5일(일금리조트) ₩849,000~
★ 보라카이 직항 5일(노팁,준특급리조트) ₩999,000~ ★ 세부 5일 ₩899,000~

유럽 추석연휴 갈라계 즐기~~!!
★ [노팁/항공이동] 옹프라우+2대음선 서유럽 4국 10일 ₩2,490,000~ 출발일: 9/26
★ [서유럽일주] 하이디산/베르사유+서유럽 6국 12일 ₩2,390,000~ 출발일: 9/27
★ [노팁/항공이동] 옹프라우+2대음선 서유럽 4국 10일 ₩2,890,000~ 출발일: 9/28
★ 암스텔담+나폴로스 서유럽 4국 8일 ₩2,490,000~ 출발일: 9/30
★ 할슈타트+프라하야경+캄파섬 "클림트 키스" 동유럽 3국 7일 ₩2,090,000~ 출발일: 9/30

[홍콩/베트남] 호주 시드니 6일 ₩1,390,000~
특 전: 5대특식(정통스테이크, 스타벅스, 디너크루즈, 로즈힐 볼링클럽 뷔페석, 베베큐 스테이크) 사막셀레스트&올림픽크루즈, 블루마운틴, 시드니 야쿠아리움, 울릉공, 동부해안+시내명소관광 불포함: 기사&가이드팁(₩60), 유류할증료 (₩25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요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여행 영업정보공개법 /여행계약법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예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회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외담(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각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서약서)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